기후 분과 [P-031]

대구광역시 영향 태풍의 기후적 특성 분석

서재원[1], 장형정[1], 박두선[1,2,3]

[1]경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2]경북대학교 대기과학과 BK21 위험기상 교육연구팀
[3]경북대학교 대기원격탐사연구소

태풍은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평균 3개가 상륙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 중 하나이다. 최근 10년간 태풍에 의한 경제적 피해액은 호우를 제외한 다른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액의 10배 이상이었다. 또한 최근 중위도로 상륙하는 태풍의 강도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태풍의 주요 길목인 한반도 남동부에 위치하여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내륙에 위치하여 같은 경상도에 위치한 다른 광역도시(부산, 울산 등)에 비해 동일한 태풍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그 영향이 실질적으로는 미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태풍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종관기상관측소(ASOS)를 기준으로 반경 500 km 이내에 진입한 태풍의 영향을 강풍, 호우, 강풍-호우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태풍의 진로를 포함한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 중 어떤 특성의 태풍이 대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Key words: 한반도 영향 태풍, 대구, 강풍, 호우, 태풍

※ 이 연구는 환경부의 재원으로 수행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개발사업(RS-2023-00232066)」, 기상청의 재원으로 수행된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 사업(RS-2022-KM2213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실 사업(RS-2023-00207866)으로 수행되었습니다.